



미 증시, 잭슨홀 미팅 및 긴축 불확실성에 기술주 약세

미국 증시 리뷰

24 일(목) 미국 증시는 실업수당청구건수, 시카고 연은 제조업 활동지수 등 경제지표 호조, 잭슨홀 미팅 경계심리에 국채금리가 재차 상승하며 하루 만에 하락 전환 (다우 -1.08%, S&P500 -1.35%, 나스닥 -1.87%)

수잔 콜린스 보스턴 연은 총재는 "추가 금리인상이 필요할 수 있다", "상당한 시간 동안 유지해야 할 금리 수준에 아주 가깝다"며 정점 금리에 아직 도달하지는 않았다는 의견 및 고금리 환경이 지속되어야 함을 시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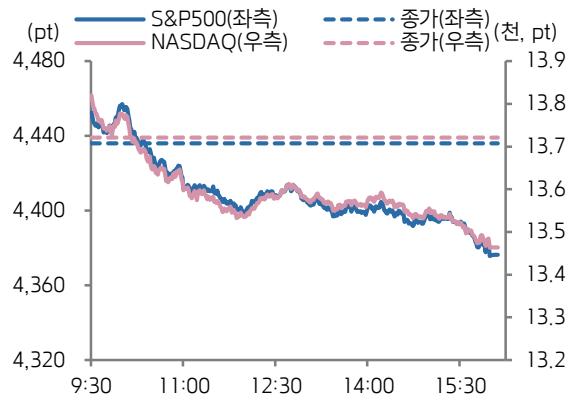
한편 패트릭 하커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는 "기준 금리는 이미 제약적인 수준에 도달했고, 나는 현재의 제약적인 금리가 경제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줘야 한다는 쪽"이라고 언급. 인플레이션은 계속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더 올리기 보다 현 수준에서 금리를 유지하면서 그동안의 긴축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봐야 할 시기라는 기준 입장 재확인. "추가 금리인상은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 데이터에 따라서 2024년에는 금리인하가 이뤄질 수도 있을 것."이라 언급.

7 월 내구재 주문은 MoM -5.2% (예상 -4.0%, 전월 4.4%)로 2020년 4월 이후 최대폭 급감. 상업용 항공기 주문이 급감한 것을 반영한 결과로 운송 제외 핵심 내구재 주문 MoM 0.5%(전월 0.2%, 예상 0.2%) 기록. 기업 투자의 지표가 되는 7월 핵심 자본재 수주는 0.1%(예상 0.1%, 전월 -0.4%) 증가했으나 6월 수치가 0.1%에서 -0.4%로 하향 조정. 집계측은 높은 금리로 인한 차입 비용의 증가와 경제적 우려가 기업 투자를 막고 있다고 언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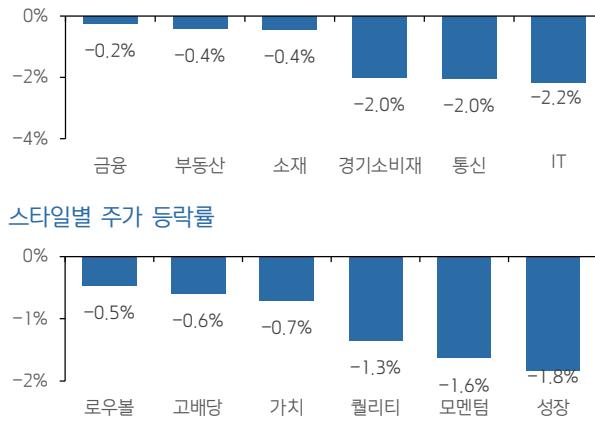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는 23만명(예상 24만명, 전주 24만명)으로 예상치를 하회, 7월 시카고 연은 제조업활동지수는 0.12(전월 -0.33) 기록하며 3개월만에 증가전환. 생산과 소득, 고용과 실업, 소비와 주택, 판매 등 크게 네 가지 부문의 85개 경제지표를 가중 평균, 산업생산, 개인소비, 주택 부문 등이 기여.

전업종이 하락한 가운데 금융(-0.2%), 부동산(-0.4%), 소재(-0.4%) 업종의 낙폭이 가장 작았고, IT(-2.2%), 통신(-2%), 경기소비재(-2%) 업종의 낙폭이 가장 컸음. 개장전 10% 가까지 급등 했던 엔비디아(0.1%)는 상승폭 반납하며 보합권에 그쳤고, AMD(-6.97%)를 비롯한 기술주 약세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3.35% 급락.

S&P500 & NASDAQ 일중 차트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주요 지수					
주식시장			외환시장		
지수	가격	변화	지수	가격	변화
코스피	2,537.68	+1.28%	USD/KRW	1,321.91	-1.33%
코스피 200	333.82	+1.42%	달러 지수	103.95	+0.51%
코스닥	901.74	+2.14%	EUR/USD	1.08	+0.02%
코스닥 150	1,457.29	+2.47%	USD/CNH	7.28	+0.02%
S&P500	4,376.31	-1.35%	USD/JPY	145.86	+0.02%
NASDAQ	13,463.97	-1.87%	채권시장		
다우	34,099.42	-1.08%	국고채 3년	3.754	-1.6bp
VIX	17.20	+7.63%	국고채 10년	3.877	-4.3bp
러셀 2000	1,846.28	-1.27%	미국 국채 2년	5.023	+5.6bp
필라. 반도체	3,481.30	-3.35%	미국 국채 10년	4.237	+4.5bp
다우 운송	15,647.98	-0.76%	미국 국채 30년	4.302	+3.2bp
유럽, ETFs			원자재 시장		
Eurostoxx50	4,232.22	-0.81%	WTI	79.05	+0.2%
MSCI 전세계 지수	669.87	-0.83%	브렌트유	83.21	0%
MSCI DM 지수	2,906.25	-1.07%	금	1947.1	-0.05%
MSCI EM 지수	982.31	+1.25%	은	24.23	-0.66%
MSCI 한국 ETF	61.51	-0.06%	구리	377.1	-0.98%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 시 30 분 기준



한국 증시 주요 체크 사항

한국 ETF 및 야간선물 동향

MSCI 한국 지수 ETF 는 0.06% 하락, MSCI 신흥국 ETF 는 0.38% 하락. 유렉스 야간선물은 1.09% 하락.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326.12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4 원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

1. 장중 미 국채 10년물 금리 흐름

주요 체크 사항

2.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3.35% 급락 등 기술주 약세 영향
3. 위안화, 원/달러 환율 흐름

증시 코멘트 및 대응 전략

24 일 잭슨홀 미팅이 개막한 가운데 회의에 참석한 연은 총재들조차도 금리인상 가능성에 대해 엇갈린 전망을 내놓으며 불확실성은 증폭. 이에 금리가 재차 상승하며 성장주 매물 출회를 촉발했고 엔비디아 실적보다 금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음을 확인. 상반된 연준위원들의 발언에서 공통점은 고금리 기간 장기화 및 금리인하 시기에 대한 불확실성.

25 일 금요일 미국장 시작 이후 파월의장 연설 시작. 작년 잭슨홀 미팅 당시 증시 3% 넘게 하락했던 이유는 “7 월 미국 소비자물가 둔화는 반길 만한 일이지만, 연준의 정책 전망을 변경시키는 데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기준에 언급하지 않았던 파월 의장의 발언이 시장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이었기 때문.

당시의 학습효과로 시장에서는 8 월 내내 추가 긴축 가능성은 반영해왔고, 지난번 예상치를 하회한 7 월 CPI 결과에도 보합권 상승에 그치는 등 극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음. 또한 지난 20 년간 잭슨홀 미팅 당일 S&P 500 지수 변동폭은 평균 +0.33%에 그쳤으며, 올해와 같이 10% 이상 강력한 랠리가 이어진 시기로 한정할 경우에도 평균 -0.38%에 그쳤다는 점에 주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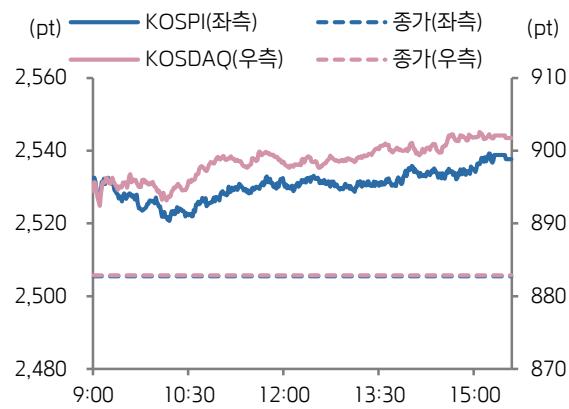
긴축 발언 강도나 데이터에 의존한 금리 결정 방식 등 파월의장 발언 자체에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극적인 충격은 제한될 수 있다고 판단. 다만 시장이 이를 해석하는 방식이 중요한데 엔비디아 실적 이후 생성된 낙관론의 지속 여부에 따라 방향성이 결정될 것.

24 일(목) 국내 증시는 금리 하락, 엔비디아 실적 서프라이즈에 힘입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네이버 등 대형주에 외국인 순매수 강하게 유입되며 강세 (KOSPI +1.28%, KOSDAQ +2.14%)

금일에는 엔비디아 실적 서프라이즈 심리 진정 및 독점 우려가 확산되며 촉발된 여타 기술주 약세, 주말에 공개될 잭슨홀 미팅 결과 대기심리가 작용하며 차익실현 매물이 출회될 것으로 판단. 전일 반도체 외에 이차전지, 인터넷, 바이오 등 금리에 민감한 성장주 중심으로 반등한 가운데, 잭슨홀 미팅 결과 이후에도 뉴스에 민감한 테마 장세에서 주도주 장세로 변화하는 흐름이 이어질 수 있을지 여부가 관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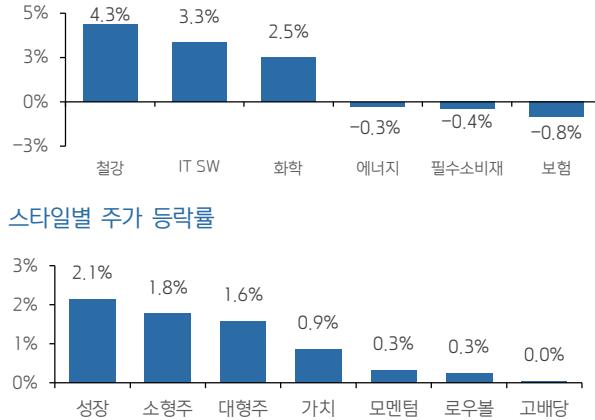
한편 전일 공개된 한은 보고서에 따르면 하반기 중 방한 중국인은 220 만명으로 2019년 대비 85%의 회복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 이번주부터 중국인 단체관광객 입국이 재개되었으며 9 월 29 일~10 월 6 일 중국 국경절 연휴기간에 본격적으로 가시화 될 것으로 기대되므로 공항 및 시내 면세점, 백화점, 호텔 업종에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

KOSPI & KOSDAQ 일중 차트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친선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시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다. 당시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기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시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 유기증권, 종목, 범위, 미래의 가격과 같은 의견이나 내용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임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시 본 자료로 내용에 의거하여 행한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부담에서 거제증권은 면제 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통하여 유익, 청탁, 전시, 차내, 차운, 표창, 부당한 행위 등으로 인해 법적 부담으로부터 자유롭다는 관점에서 이에 대하여 유익이나 책임은 차단됩니다.